



KOREAN A1 – STANDARD LEVEL – PAPER 1
CORÉEN A1 – NIVEAU MOYEN – ÉPREUVE 1
COREANO A1 – NIVEL MEDIO – PRUEBA 1

Tuesday 17 November 2009 (afternoon)
Mardi 17 novembre 2009 (après-midi)
Martes 17 de noviembre de 2009 (tarde)

1 hour 30 minutes / 1 heure 30 minutes / 1 hora 30 minutos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Write a commentary on one passage only. It is not compulsory for you to respond directly to the guiding questions provided. However, you may use them if you wish.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 Rédigez un commentaire sur un seul des passages. Le commentaire ne doit pas nécessairement répondre aux questions d'orientation fournies. Vous pouvez toutefois les utiliser si vous le désirez.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criba un comentario sobre un solo fragmento. No es obligatorio responder directamente a las preguntas que se ofrecen a modo de guía. Sin embargo, puede usarlas si lo desea.

다음 중 하나를 골라 해설하시오.

1.

매화

- 5 데에 매화가 구름같이 피었더군요. 가난한 살림도 때로는 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수목 빗갈로 퇴색해 버린 장지 도배에 스며드는 묵흔처럼 어렴풋이 한두 개씩 살이 나타나는 완자창 위로 어찌면 그렇게도 소담스런 희멀건 꽃송이들이 소복한 부인네처럼 그렇게도 고요하게 필 수가 있습니까. 실례의 말씀이오나 "하도 오래간만에 우리 저녁이나 같이 하자."고 청하신 선생의 말씀에 서슴지 않고 용한 것도 실은 선생을
- 10 대한다는 기쁨보다는 데에 매화가 성개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때문이요, 십 리나 되는 비탈길을 얼음 빙판에 말하러 함에 으레 암향과 달과 황혼을 들더군요. 선생의 서재를 황혼에 달과 함께 찾았다는 나도 속물이거니와 너무나 유명한 임포의 시가 때로는 매화를 좀 더 신선하게 사랑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한 방해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화초를 완상(玩賞)하는 데도 매너리즘이 필요한 까닭이 있나요. 데에 매화가 구름같이 자못 성관으로 피어 있는 그 앞에 토끼처럼 경이의 눈으로 쪼그리고 앉은 나에게 두보의
- 15 시구나 혹은 화정의 고사가 매화의 품위를 능히 좌우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하고많은 화초 중에 하필 매화만이 좋으란 법이 어디 있나요. 정이 든다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하지 않는가 봅니다. 계모 밑에 자란 자식은 배불리 먹어도 살이 찌는 법이 없고, 남자가 심은 난초는 자라기는 하되 꽃다움이 없다는군요. 대개 정이 통하지 않은 소이라 합니다.
- 20 연래로 나는 하고많은 화초를 심었습니다. 봄에 진달래와 철쭉을 길렀고, 여름에 월계와 목련과 핏빛처럼 곱게 피는 다알리아며, 가을엔 울 밑에 국화도 심어 보았고, 겨울이면 내안두에 물결 같은 난초와 색시 같은 수선이며, 단아한 선비처럼 매화분을 놓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철따라 어느 꽃 어느 풀이 아름답고 곱지 않은 것이 있으리요마는 한 해 두 해 지나는 동안 내 머리에서 모든 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내 기억에서 종시 사라지지 않는 꽃 매화만이 유령처럼 내 신변을 휩싸고 떠날 줄을 모르는구려. 매화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나뇨? 세인이 말하기를 매화는 늙어야 한다 합니다. 그 늙은
- 25 등걸이 용의 몸뚱어리처럼 뒤틀려 올라간 곳에 성긴 가지가 군데군데 뻗고 그 위에 뒹뒹뒹 몇 개씩 꽃이 피는 데 품위가 있다 합니다. 매화는 어느 꽃보다 유덕한 그 암향이 좋다 합니다. 백화가 없는 빙설리에서 홀로 소리쳐 피는 꽃이 매화밖에 어디 있느냐 합니다.
- 30 혹은 이러한 조건들이 매화를 아름답게 꾸미는 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매화를 사랑하는 마음은 실로 이러한 많은 주관이 멸시된 곳에 있습니다. 그를 대하매 아무런 조건 없이 내 마음이 황홀하여지는 데야 어찌하리까. 매화는 그 등치를 꾸미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 자라고 싶은 대로 우뚝 뻗어서 제 피고 싶은 대로 피어 오르는 꽃들이 가다가 훌쩍 향기를 보내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제가 방한 구석에 있는 체도 않고 은사처럼 겸허하게 앉아 있는 품이 그럴듯합니다. 나는 구름같이 핀 매화 앞에 단정히 앉아 행여나 풍겨 오는 암향을 다칠세라 호흡도 가다듬어 쉬면서 격동하는 심장을 가라앉히기에 힘을 씁니다. 그는 앉은 자리에서 나에게 곧 무슨 이야긴지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매화를 대할 때의 이
- 35 경건해지는 마음이 위대한 예술을 감상할 때의 심경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내 눈앞에 한 개의 대리석상이 떠오릅니다. 희랍에서도 유명한 피디어스의 작품인가 보아요. 다음에 운강과 용문의 거대한 석불들이 아름다운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서 내 눈앞에 황홀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수유에 이 여러 환영들은 사라지고 신라의 석불이 그 부드러운 곡선을 공중에 그리면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자세로 내 눈을 현황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나는 다시 희멀건 이씨조의 백사기를 봅니다. 희미한

- 35 보름달처럼 아름답게 조금도 그의 존재를 자랑함이 없이 의젓이 제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수줍어하는 품이 소리쳐 불러도 대답할 줄 모를 것 같구려. 고동의 빛이 제아무리 곱다 한들, 용천요의 품이 제아무리 높다 한들 이렇게도 적막한 아름다움을 지닐 수 있겠습니까. 댁에 매화가 구름같이 핀 그 앞에서 나의 환상은 한없이 전개됩니다. 그러다가 다음 순간 나는 매화와 석불과 백사기의 존재를 모조리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잔잔한 물결처럼 내 마음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있는 듯 만 듯한 매화 향기가 내 코를 스치는구려.
- 40 내 옆에 선생이 막 책장을 넘기시는 줄을 어찌 알았으리요. 요즈음은 턱없이 분주한 세상이올시다. 기실 내남 할 것 없이 몸보다는 마음이 더 분주한 세상이올시다. 바로 일전이었던가요. 어느 친구와 대좌하였을 때 내가 "×선생 댁에 매화가 피었다니 구경이나 갈까?" 하였더니 내 말이 맺기도 전에 그는 "자네도 꽤 한가로운 사람일세." 하고 조소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먼 산만 바라보았습니다.
- 어찌어찌하다가 우리는 이다지도 바빠졌는가. 물에 빠져 금시에 죽어 가는 사람을 보고 "그 친구 인사나
- 45 한 자였다면 진저 주었을걸." 하는 영국풍의 침착성을 못 가졌다 치더라도 이 커피는 맛이 좋으니 언짢으니, 이 그림은 잘 되었으니 못 되었으니 하는 터수에 빙설을 누경하여 지루하게 피어난 애련한 매화를 완상할 여유조차 없는 이다지도 냉회같이 식어버린 우리네의 마음이리까?

<정해(丁亥) 입춘 X 선생 댁의 노매(老梅)를 보다>.

(김용준, <근원수필>, 1948)

- 이 수필의 서술적 특징과 그것이 갖는 효과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이 수필의 분위기를 살펴보고 작가가 이것을 어떻게 형상화 하였는지 생각해 보자.
- 이 수필에서 작가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매화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보자.
- 이 수필에서 드러나는 작가의 태도와 그것이 읽는 이에게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2.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

- 어려서 나는 램프불 밑에서 자랐다.
밤중에 눈을 뜨고 내가 보는 것은
재봉틀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진 할머니뿐이었다.
- 5 나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다.
조금 자라서는 칸델라불 밑에서 놀았다.
밝은 칠혹 같은 어둠
지익지익 소리로 새파란 불꽃을 뿜는 불은
주정하는 험상궂은 금점꾼들과
- 10 썸이 늦는다고 물려와 생떼를 쓰는 그
아내들의 모습만 돌음새졌다.
소년 시절은 전등불 밑에서 보냈다.
가설극장의 화려한 간판과
가갯방의 휘황한 불빛을 보면서
- 15 나는 세상이 넓다고 알았다, 그리고
- 나는 대처로 나왔다.
이곳 저곳 떠도는 즐거움도 알았다.
바다를 건너 먼 세상으로 날아도 갔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들 들었다.
- 20 하지만 멀리 다닐수록, 많이 보고 들을수록
이상하게도 내 시야는 차츰 좁아져
내 망막에는 마침내
재봉틀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진 할머니의
- 25 실루엣만 남았다.
- 내게는 다시 이것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

(신경림,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 1998)

- 이 시의 지배적 심상은 무엇인가?
 - 이 시에서 삶의 변화를 무엇에 비유하였고 그 효과는 무엇인가?
 - 이 시에서 반복되는 부분을 찾고 이 부분이 갖는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 이 시에서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